

문어 텍스트의 장르별 주어의 실현 양상

김수정*

|| 차례 ||

- I. 서론
- II. 분석 방법
- III. 텍스트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
- IV. 텍스트의 앞에 언급된 경우
- V.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소설·보도기사·사설에서의 주어의 실현 양상을 살펴 문어 텍스트의 장르별 주어의 실현 양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 전달에 목적이 있는 보도기사에서는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 주어의 지시체가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소설이나 사설에 비해 강하다.

둘째,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에 처음 출현할 때 ‘은/는’ 결합 형식의 빈도가 소설이나 사설에 비해 보도기사에서 특히 높는데, 이는 보도기사에 인용이 많이 나타나고, 인용 부분의 출처를 나타내는 주어는 대부분 ‘은/는’ 결합 형식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셋째,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에 처음 출현할 때 ‘이/가’ 결합 형식의 빈도가 보도기사와 사설에 비해 소설에서 높는데, 이는 소설이 긴 텍스트이고 여러 사건들로 내용이 구성되므로 새로운 사건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이/가’ 결합 형식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넷째,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화제로 제시된 경우에 생략되는 경향이 소설에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비해 보도기사와 사설에서 강한데, 이는 소설에 비해 단락의 길이가 짧은 보도기사와 사설은 단락 내의 앞에 화제로 제시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해석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더 쉽게 생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경우에 ‘이/가’ 결합 형식의 빈도간 소설과 보도기사에 비해 사설에서 높은데, 이는 어떤 지시체를 특별히 지정하여 말하는 문맥이 사설에서 많이 나타나고, 이러한 경우에 ‘이/가’ 결합 형식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 문어 텍스트, 장르, 주어, 화제, 생략, ‘은/는’, ‘이/가’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문어 텍스트의 장르별 주어의 실현 양상을 밝히는 것이다. 김수정·최동주(2013)에서는 국어의 주어는 ‘이/가’(이하 ‘이’)가 결합한 형식, ‘은/는’(이하 ‘는’)이 결합한 형식, ‘는’이 아닌 다른 보조사가 결합한 형식으로 나타나거나, 조사 없이 명사(구)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흔히 생략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형식들이 특정 위치에 나타나는 것이 임의적인 현상이 아님에 착안하여 소설 텍스트에서의 주어의 실현 양상을 살펴본 바 있다. 본고는 김수정·최동주(2013)의 후속 연구로서, 김수정·최동주(2013)에서 확인한 소설 텍스트에서의 주어의 실현 양상이 국어의 다른 문어 텍스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 문어 텍스트의 장르에 따른 주어의 실현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자료로 사용한 문어 텍스트의 장르는 소설을 포함하여 보도기사와 사설이다.¹⁾ 소설·보도기사·사설 자료는 텍스트의 길이, 목적,

1) 보도기사와 사설은 모두 신문기사의 하위 범주에 속한다. 신문기사는 크게 사실기사,

서술 방식 등에서 차이가 뚜렷하므로 각 장르별 주어의 실현 양상을 비교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의 자료로 선정하였다. 김수정·최동주(2013)에서 밝힌 소설 텍스트에서의 주어의 실현 양상과 보도기사, 사설에서의 주어의 실현 양상을 비교하기 위하여 소설의 자료는 김수정·최동주(2013)의 주자료인 박완서의 소설 ‘그 가을의 사흘 동안’ 1을 사용하였고,²⁾ 보도기사 31편, 사설 26편을 자료로 하여³⁾ 계량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문어 텍스트의 일부 장르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문어 텍스트의 장르별 주어의 실현 양상을 전반적으로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주어의 실현 양상이 소설·보도기사·사설에서 차이를 보이는 바, 문어 텍스트의 장르에 따라 주어의 실현 양상에 차이점이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소설·보도기사·사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어의 실현 양상은 문어 텍스트의 일반적인 주어의 실현 양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논평기사, 해설기사로 분류할 수 있는데, 사실기사는 정보 전달이, 논평기사는 의견 전달이 주목적이다(장호순, 2012: 269). 본 연구에서 자료로 사용한 보도기사는 사실 기사에, 사설은 논평기사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보도기사와 사설이 텍스트의 목적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데 주목하여, 서로 다른 장르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2) 김수정·최동주(2013)에서는 하근찬의 ‘수난이대’를 보조 자료로 사용하였는데, 주자료인 ‘그 가을의 사흘 동안’ 1과 세부적인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 가을의 사흘 동안’ 1만을 소설 자료로 사용하였다. ‘그 가을의 사흘 동안’은 1,2,3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김수정·최동주(2013: 39)에서 밝힌 바, 소설 속의 대화는 작가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대화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화 참여자들의 발화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실제의 대화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설에 삽입된 대화는 다루지 않았다. 보도기사와 사설에서도 직접 인용한 경우는 기자나 논설자의 가공이 반영될 여지가 있어 실제의 발화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II.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김수정·최동주(2013)의 후속 연구로서, 소설 텍스트에서의 주어의 실현 양상을 살펴본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도기사와 사설을 분석한다. 김수정·최동주(2013)에서 밝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⁴⁾

- (1) 주어의 실현 양상은 주어가 가리키는 지시체가⁵⁾ 텍스트의 앞에서 언급된 적이 없는 경우(즉, 처음 출현한 경우)인가, 아니면 앞에 언급된 적이 있는 경우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주어가 가리키는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서 언급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텍스트의 앞에, 즉 문장 혹은 절(이하 편의상 ‘문장’이라고 함)⁶⁾ 언급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게 될 것이다. 또한 주어가 가리키는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 언급된 적이 있는 경우는, 단락의 경계가 주어의 실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와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경우로 구별하기로 한다.

위의 설명에서 나타나는 주어의 실현 양상을 범주화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 가.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
 - 주어가 생략된 경우

4) 분석 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은 김수정·최동주(2013: 40-46) 참조.

5) 지시체(referent)는 특정 발화에서 언어 표현에 의해 지칭된 개체(entities)와 상황(states of affairs)을 뜻한다(Lambrecht 1994: 37, 김수정·최동주 2013: 40에서 재인용).

6) 본 연구에서는 이어진 문장의 앞절과 뒷절은 각각 하나의 문장으로 간주하였으며, 명사절과 관형절, 인용절 등 내포문은 전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제외하였다. 이어진 문장의 앞절을 모두 문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으며,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김수정·최동주 2013: 40).

- 주어가 출현한 경우
- 나.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 언급된 경우
 - a.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
 - 주어가 생략된 경우
 - 주어가 출현한 경우
 - b.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경우
 - 주어가 생략된 경우
 - 주어가 출현한 경우

본 연구는 소설·보도기사·사설 자료에서의 주어의 실현 양상을 위와 같이 범주화하여 계량적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문어 텍스트의 주어의 실현 양상을 장르별로 비교 분석할 것이다.

Ⅲ. 텍스트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는 소설·보도기사·사설 모두에서 주어가 출현하는 빈도가 높으나, 텍스트에 처음 출현함에도 불구하고 생략되는 경우들이 모든 텍스트에서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된다. 다음은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의 주어의 생략과 출현 빈도를 장르별로 보인 것이다.

(3)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

구분		주어 생략	주어 출현	합계
소설	출현수	21	104	125
	백분율	16.8%	83.2%	100.0%
보도기사	출현수	15	266	281
	백분율	5.3%	94.7%	100.0%

사설	출현수	41	314	355
	백분율	11.5%	88.5%	100.0%

1. 주어가 생략된 경우

소설·보도기사·사설 모두에서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 언급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 보도기사의 생략 빈도가 5.3%로 특히 낮았다. 보도기사는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텍스트의 앞에 언급된 적이 없는 지시체는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보 전달에 용이하므로 보도기사에서 주어의 생략 빈도가 낮은 것이다.

다음은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의 주어가 생략된 예들이다(밑줄은 서술어임).

- (4) 가.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그 가을의 사흘 동안, 소설)
 나. 53년 봄이니까 아직 동란 중이었다. (그 가을의 사흘 동안, 소설)
 다. 손으로 우단천을 결과 반대 방향으로 쓸면 …… (그 가을의 사흘 동안, 소설)
- (5) 가. 과거 중수부 정원이 60여명 안팎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 전망된다. (한국일보 2013.11.22, 보도기사)
 나. 청와대 내에서는 “대통령 물러나라고 기도하는 게 말이 되냐”며 매우 격앙했다. (한국일보 2013.11.23, 보도기사)
- (6) 가. 새학기를 불과 녀 달 남겨놓고 …… 국정 교과서 논란까지 나오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이다. (경향신문 2013.11.06, 사설)
 나. 그럼에도 통계를 보면 저물가 시대가 슬그머니 우리 앞에 다가서고 있다. (중앙일보 2013.11.21, 사설)
 다. 세금이나 과태료를 채납하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조선일보 2013.11.

06. 사실)

(4)는 소설의 예인데, 김수정·최동주(2013: 46-47)는 소설에서 텍스트의 앞에 제시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가 나오지 않는 것은 (4가)의 수사적 특성으로 볼 수 있는 경우, (4나)와 같이 시간, 거리, 장소, 상황 등을 언급하는 경우, (4다)와 같이 주어가 화자이거나, 주어가 누구인지가 특별한 의의가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하였다. 소설에서 수사적 특성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1개, 시간, 거리, 장소, 상황 등을 언급하는 경우가 8개, 주어가 누구인지가 특별한 의의가 없는 경우는 12개였다.

(5)는 보도기사의 예인데, (5가)는 주어가 누구인지가 특별한 의의를 갖지 않는 경우로 볼 수도 있으나, 신문의 보도기사나 사설에서 자주 쓰이는 ‘~을 고려하면, ~을 보면, ~을 감안하면’과 같은 상투적인 구문이 서술어인 경우로서, 따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때 주어가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5나)는 주어가 누구인지가 특별한 의의가 없는 경우이다. 신문의 상투적인 구문인 경우는 4개, 주어가 누구인지가 특별한 의의가 없는 경우는 11개였다.

(6)은 사설의 예이다. (6가)는 사설에서만 나타나는 경우로, ‘~ 걱정이 다, ~ 궁금하다, ~ 바라다’ 등과 같이 필자의 생각이나 주장이 드러나는 서술어가 쓰일 때 주어가 생략된 경우이다. 이러한 서술어의 주어는 글쓴이 자신이므로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⁷⁾ (6나)는 신문의 상투적인 구문인 경우이고, (6다)는 주어가 누구인지가 특별한 의의가 없는 경우이다. 필

7) 남기삼·고영근(2011: 251-252)은 “저 노래를 들으면 참 슬프다.”의 예를 들면서, 앞에 아무런 문맥이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주어가 생략된 것은 느낌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의 주어는 말하는 이 자신인 까닭에 굳이 주어를 밝혀 말하지 않아도 되므로 주어가 생략될 수 있다고 하였다.

자의 생각이나 주장이 드러나는 서술어의 주어가 생략된 경우는 9개, 신문의 상투적인 구문인 경우는 7개, 주어가 누구인지가 특별한 의의가 없는 경우는 25개였다.

즉,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 언급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소설·보도기사·사설에서 공통적으로 주어가 누구인지가 특별한 의의가 없는 경우임을 알 수 있다. 장르별 특성으로 소설에서는 수사적 특성, 시간, 거리, 장소, 상황 등을 언급하는 경우에 주어의 생략이 가능했고, 사설에서는 필자의 생각이나 주장이 드러나는 서술어가 쓰일 때 주어의 생략이 가능했다. 또 보도기사와 사설에서 공통적으로 신문의 상투적인 구문인 경우에 주어의 생략이 가능했는데, 소설에서 나타난 수사적 특성의 경우, 시간, 거리, 장소, 상황 등을 언급하는 경우는 보도기사와 사설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⁸⁾

2. 주어가 출현한 경우

주어가 외현적으로 출현하는 경우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다. 다음 예를 보자.

- (7) 가. [수능 후 첫 주말인 9일과 10일 치른 각 대학의] 논술고사 응시율은
 지난해보다 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경향신문 2013.11.10, 보도기사)
 나. 정부가 태풍 피해로 신음하고 있는 필리핀에 2,000만 달러(한화 약
 212억 원)를 추가 지원한다. (한국일보 2013.11.23, 보도기사)

8) 장호순(2012: 272)에서는 신문기사는 대개 6하 원칙에 따라 작성된다고 하면서, 6하 원칙은 객관적 사실을 서술하는 데 편리한 문장 구성방식이라고 한 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도기사와 사설에서는 시간, 거리, 장소, 상황 등의 정보에 대한 주어가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삼성그룹도 어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인근에 …… 개관했다.(한국 일보 2013.11.06, 사설)

라. 업등이가 들어온 지 한 달쯤 있다 혼자 피란 나갔던 딸까지 돌아왔다.(그 가을의 사흘 동안, 소설)

김수정·최동주(2013: 47-48)에서는 (7가)와 같이 주어에 ‘는’이 결합한 형식을 ‘NP-는’, (7나)와 같이 ‘이’가 결합한 형식을 ‘NP-이’, (7다)와 같이 ‘는’ 이외의 보조사가 결합한 형식을 ‘NP-X’, (7라)와 같이 조사가 없는 형식을 ‘NP’로 표시했는데, 본고에서도 이에 따라 표시하기로 한다. 다음은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에 처음 출현할 때의 실현 양상을 장르별로 보인 것이다.

(8)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에 처음 출현하는 경우

구분		NP-는	NP-이	NP-X	NP	합계
소설	출현수	48	40	15	1	104
	백분율	46.2%	38.5%	14.4%	1.0%	100.0%
보도기사	출현수	147	93	25	1	266
	백분율	55.3%	35.0%	9.4%	0.4%	100.0%
사설	출현수	140	129	39	6	314
	백분율	44.6%	41.1%	12.4%	1.9%	100.0%

(8)을 보면,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에 처음 출현할 때 소설·보도기사·사설 모두에서 주어는 대부분 ‘는’ 결합 형식과 ‘이’ 결합 형식으로 나타나고, 조사 없이 나타나는 예는 거의 없다.⁹⁾ 소설·보도기사·사설 모두

9) 김수정·최동주(2013: 48)에서 (7라)의 ‘한 달쯤’을 주어로 간주할 수 있는지도 확실치 않다고 한 바 있는데, 보도기사에서도 부사어로 간주할 수 있는 예(1개)를 제외하면 조사가 없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사설에서는 부사어로 간주할 수 있는 예(1개)

에서 ‘는’ 결합 형식의 빈도가 ‘이’ 결합 형식의 빈도보다 높은데, 김수정·최동주(2013: 48-50)는 이에 대해 텍스트에 처음 출현하는 지시체가 ‘는’ 결합 형식의 화제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주목된다고 하면서, 다음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9) 가. 서울은 단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 가을의 사흘 동안, 소설)
 나. 그때 나는 …… 단신 서울로 올라와 …… (그 가을의 사흘 동안, 소설)
 다. 개업할 만한 자리는 시내 중심가에도 수두룩했다. (그 가을의 사흘 동안, 소설)
 라. 난리통에 아내는 식량 구하러 친정에 갔다 오다 폭사하고 …… (그 가을의 사흘 동안, 소설)
 마. 문제는 늘 눈감고도 할 수 있다는 데 있었다. (그 가을의 사흘 동안, 소설)

(9)는 텍스트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지시체를 가리키는 주어가 ‘는’ 결합 형식으로 실현된 예인데, (9가,나)는 주어가 고유명사와 대명사인 경우, (9다)는 주어가 관형어의 수식을 받음으로써 한정성이 높아진 명사구인 경우, (9라)는 맥락을 통해 알 수 있는 경우, (9마)는 주어가 총칭적 의미이므

외에 다음과 같은 예가 있었다.

- ① 수퍼 태풍 ‘하이옌’이 필리핀을 덮친 지 12일이 지났다. (조선일보 2013. 11.21, 사설)
 ② 일본 역시 거품 붕괴 이후 7년간 저물가가 이어지다 본격적인 장기불황의 늪으로 떨어졌다. (중앙일보 2013.11.21, 사설)
 ①, ②는 확실히 주어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인데, ①은 의존 명사 뒤에 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예(3개)이고, ②는 명사 바로 뒤에 ‘역시’라는 부사가 나타나는데, 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예(2개)이다. ②의 경우에 조사가 나타난다면 ‘역시’의 의미를 띠는 ‘도’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로 한정성을 가지는 경우로 보았다. 이를 통해, 주어가 텍스트에서 처음 출현하는 명사구임에도 불구하고 ‘는’ 결합 형식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세상사적 지식이나 맥락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시체는, 텍스트에 도입하는 과정 없이 화제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보도기사와 사설에서는 어떠한지 다음 예를 보자.

(10) 가. 이탈리아 아르마니 시계는 한국에서 …… 팔리고 있었다. (중앙일보 2013.11.20, 사설)

나. 장비가 워낙 단출해 …… 텐트 치고 침낭 깔고 식사 준비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분 정도면 충분하다. (한국일보 2013.11.13, 보도기사)

다. 돌파구는 이란에서 열렸다. (한국일보 2013.11.24, 보도기사)

(11) 가. 오종운 평가이사는 “논술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고 평가했다. (경향신문 2013.11.10, 보도기사)

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0일 “정부가 필리핀 파병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2013.11.21, 사설)

다. 우리는 가히 ‘중북몰이가 일상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 (경향신문 2013.11.21, 사설)

텍스트에 처음 출현하는 지시체가 ‘는’ 결합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의 양상은 보도기사와 사설에서도 유사하였다. (10)은 앞서 살핀 소설의 예와 마찬가지로 텍스트에 처음 출현하는 지시체이지만, 세상사적 지식이나 맥락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시체이므로 텍스트에 도입하는 과정 없이 화제로 제시된 경우로 볼 수 있는 예들이다. (10가)는 주어가 고유명사인 경우, (10나)는 주어가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 한정성이 높아진 경우, (10다)는 주어가 총칭적 의미를 띄므로 한정성을 가지는 경우이다.

보도기사와 사설에서만 확인되는 경우도 있었다. (11가, 나)는 보도기사

와 사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인용이 나타난 경우로, 인용 부분의 출처를 나타내는 주어는 ‘는’ 결합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⁰⁾ 보도기사에서 텍스트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지시체를 가리키는 주어가 ‘는’ 결합 형식으로 실현된 예 147개 중 주어가 인용 부분의 출처를 나타내는 경우는 60개였는데, 그중 ‘는’ 결합 형식으로 나타난 경우가 57개, ‘이’ 결합 형식으로 나타난 경우는 3개에 불과했다. 사설에서는 텍스트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지시체를 가리키는 주어가 ‘는’ 결합 형식으로 실현된 예 140개 중 주어가 인용 부분의 출처를 나타내는 경우는 14개였고, 그중 ‘는’ 결합 형식으로 나타난 경우는 12개, ‘이’ 결합 형식으로 나타난 경우는 2개였다.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에 처음 출현하는 전체 경우 중 주어가 인용 부분의 출처를 나타내는 경우의 빈도가 사설에 비해 보도기사에서 높은 점도 주목된다.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에 처음 출현하는 경우 중 주어가 인용 부분의 출처를 나타내는 경우의 빈도는 보도기사에서 22.6%(전체 266개 중 60개)인데 비해 사설에서는 4.5%(전체 314개 중 14개)에 불과한 것이다. (8)에서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에 처음 출현할 때 ‘는’ 결합 형식의 빈도가 소설(46.2%)이나 사설(44.6%)에 비해 보도기사(55.3%)에서 특히 높은 것은 여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보도기사에서 정보를 전달할 때 인용이 많이 나타나고,¹¹⁾ 그 경우에 주어의 지시체는 ‘는’ 결합 형식으로 대부분

10) 최동주(2012: 41-43)는 다음의 보도기사 예에서 화제인 ‘경찰 대변인’의 뒤에 언급되는 내용을 ‘경찰 대변인’에 관한 정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화제에 대한 설명’ 일 때에만 화제-논평 구조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언급하는 내용의 출처를 표시할 때에도 그러한 구조를 취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예) 경찰 대변인은 “타살 흔적은 없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2012.2.13)

11) 장호순(2012: 280-285)은 “신문기사는 취재원으로부터 입수한 다양한 정보 중 필요한 부분을 인용해 기사의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주고 현실감을 더해 준다.”고 하였다.

나타나기 때문에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에 처음 출현할 때 보도기사의 ‘는’ 결합 형식의 빈도가 소설이나 사설에 비해 높은 것이다.

(11다)는 사설에서만 나타나는 경우로서, (11다)의 주어 ‘우리’는 필자 본인은 물론 사설을 읽는 독자를 포함하여 다수의 지시체를 지칭하고 있다. 이남성(2003: 129-132)은 사설에서 ‘우리’의 쓰임에 대해 “논설자는 독자와 동일 공동체라는 명목아래 공통적인 견해를 공유한다고 가정하여 자신의 견해가 곧 일반독자의 견해인 듯 주장하며,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에 객관적인 힘을 실기 위해 ‘우리’에 기대고 있다.”라고 한 바 있다. 사설에서 필자의 생각이나 주장이 객관적인 힘을 얻고자 사용되는 ‘우리’는 필자와 독자를 포함하는 대명사로서, 텍스트에 처음 출현하는 경우에도 ‘는’ 결합 형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IV. 텍스트의 앞에 언급된 경우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서 이미 언급된 적이 있는 경우는¹²⁾ 단락 내에서 앞에 언급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와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다.

1.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서 언급된 적이 있으나, 단락 내의 앞에

12) 김수정·최동주(2013: 51)에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내용이 언급된 경우는 물론, 외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생략된 바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였다.

언급되지 않은 경우는 소설·보도기사·사설 모두에서 주어가 출현하는 빈도가 매우 높았다.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 언급된 바 있더라도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생략되지 않고 나타나는 경향이 강한 것이다.¹³⁾ 다음은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 언급된 바 있으나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의 주어의 생략과 출현 빈도를 장르별로 보인 것이다.

(12)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

구분		주어 생략	주어 출현	합계
소설	출현수	21	120	141
	백분율	14.9%	85.1%	100.0%
보도기사	출현수	7	127	134
	백분율	5.2%	94.8%	100.0%
사설	출현수	11	58	69
	백분율	15.9%	84.1%	100.0%

1) 주어가 생략된 경우

김수정·최동주(2013: 52-53)에서는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 언급된 바 있으나,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는 외현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전형적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맥락상 분명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생략될 수 있다고 하였다(밑줄은 서술어임).

(13) 가. 그러나 앞으로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그 가을의 사흘 동안, 소설)
나. 그러나 그런 일을 한 번 치르고 나면 한바탕 몸살 비슷한 증세를

13) 이에 대해 김수정·최동주(2013: 52)는 담화 화제가 대체로 단락의 경계에서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않는 허약한 구석도 있어서 …… (그 가을의 사흘 동안, 소설)

(13가)의 생략된 주어는 단락 내의 앞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텍스트의 앞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 바 있는 표현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날’이고, (13나)의 생략된 주어는 서사자인 ‘나’이다.

보도기사와 사설에서도 이러한 양상은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다음 예를 보자.

(14) 가. 건물 형태와 층수, 방의 크기, 대문 색깔 등과 가해자의 말투 및 인상
착의를 물어 …… (동아일보 2013.11.14, 보도기사)

나. 지방대를 위기에서 구해야 하지만 지방대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 (조선일보 2013.11.05, 사설)

다. 하루빨리 문화재 분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정상화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경향신문 2013.11.21, 사설)

(14가,나)의 각각 생략된 주어인 ‘접수원’, ‘정부’는 단락 내의 앞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텍스트의 처음부터 반복적으로 나타난 바 있는 지시체이다. (14다)는 사설에서만 나타난 경우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필자의 생각이나 주장이 드러나는 서술어가 쓰일 때 주어가 생략된 경우이다.¹⁴⁾ 이때의 주어는 글쓴이 자신이므로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다. 즉, 보도기사와 사설에서도 소설과 마찬가지로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 언급된 바 있으나,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맥락상 분명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생략될 수 있다.

(12)를 보면,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 언급된 바 있으나, 단락

14) 사설에서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 언급된 바 있으나,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 주어가 생략된 예 11개 중 (14다)와 같은 예는 4개였다.

내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 소설이나 사설에 비해 특히 보도기사에서 생략된 빈도가 낮았는데, 이는 앞서 살핀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의 양상과 동일하다(3) 참조). 보도기사에서는 정보의 명확한 전달에 목적이 있는 장르적 특성으로 인하여,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텍스트의 앞에 언급된 적이 있더라도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 모두에서 주어의 지시체가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소설이나 사설에 비해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 주어가 출현한 경우

다음은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 언급된 바 있으나,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의 외현적 주어의 실현 양상을 장르별로 보인 것이다.

(15)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에서 처음 출현하는 경우

구분		NP-는	NP-이	NP-X	NP	합계
소설	출현수	81	31	8	0	120
	백분율	67.5%	25.8%	6.7%	0.0%	100.0%
보도기사	출현수	112	12	2	1	127
	백분율	88.2%	9.4%	1.6%	0.8%	100.0%
사설	출현수	44	6	8	0	58
	백분율	75.9%	10.3%	13.8%	0.0%	100.0%

(15)를 보면,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에서 처음 출현하는 경우에 ‘는’ 결합 형식의 빈도가 소설·보도기사·사설 모두에서 텍스트에 처음 출현할 때의 ‘는’ 결합 형식의 빈도(앞의 (8) 참조)에 비해 크게 높다. 이에 대해

김수정·최동주(2013: 54-56)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는’ 결합 형식과 ‘이’ 결합 형식의 차이를 설명한 바 있다.

(16) 가. …… 안절부절 못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는 뭔가를 설명하려고 두서없이 지껄여대고 있었다.

“선생님, 좀 서둘러주세요하겠구먼요 …… 저도 살아 있지 않습니다요.” 그는 잠시도 입을 다물지 않고 횡설수설했다. …… (그 가을의 사흘 동안, 소설)

나. 계약이 끝나고 구전까지 지불하고 나서야 황 씨는 무슨 병 고치는 병원을 할 거냐고 물었다. 이제 완전히 내 대변인이 된 것처럼 구는 데 익숙해진 영감이 먼저 나섰다.

“훗뚜루 다 보신다고 안 했남. 선상님이 그러셨죠 잉?” (그 가을의 사흘 동안, 소설)

(16가)의 경우 인용문의 앞에도 ‘…… 두서없이 지껄여대고 있었다’는 설명이 있어 ‘횡설수설’하는 상황이 새로운 사건의 전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의 ‘는’을 ‘이’로 바꾸기 어렵다고 보았고, (16나)에서 ‘황 씨’가 ‘무슨 병 고치는 병원을 할 거냐고 물은 것은 서사자인 ‘나’에게였을 것이나, ‘완전히 내 대변인이 된 것처럼 구는 데 익숙해진 영감이 먼저’ 나선 것은 예상치 못했던 사건으로서, 새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영감이’의 ‘이’를 ‘는’으로 바꾸기 어렵다고 하였다. 즉, 주어가 ‘는’ 결합 형식인 발화는 그 앞에 나오는 부분과 하나의 사건을 이루는 하위 상황들에 대한 서술일 때 쓰이며, 주어가 ‘이’ 결합 형식인 발화는 새로운 사건의 전개일 때 쓰인다고 보았다.¹⁵⁾

15) 이에 대해 김수정·최동주(2013: 56)는 주어가 ‘NP-는’의 형식인 문장은 화제-논평 구조로서 (독자가 알 수 있을 것으로 가정되는) 화제에 대해 설명할 때 쓰이며, 주어가

보도기사와 사설에서는 어떠한지 다음 예를 보자.

(17) 가. **민주노총**이 10일 노조의 설립신고증을 찢었다. ……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3만명이 참석해 ‘민주주의 파괴 중단, 노동탄압 분쇄,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청계천 전태일다리까지 행진했다. (경향신문 2013.11.10, 보도기사)

나. 국가정보원이 불법적으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트위터 글**이 또 무더기로 튀어나왔다. 지난번엔 5만여건 수준이었지만 이번엔 100만건을 훨씬 넘는다. ……

트위터 글은 수많은 계정을 통해 계속 옮겨졌을 테니 그 파괴력은 어마어마한 수준이었을 것이다. (한겨레신문 2013.11.21, 사설)

(18) 가. **이번 평결**은 지난해 미 배심원단이 10억5,000만달러를 삼성전자의 손해 배상액으로 평결했으나 루시 고 판사가 일부를 재산정하도록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

하지만 이번 평결이 개운치만은 않다. 애국심에 호소한 애플의 국수주의 전략이 통한 평결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한국일보 2013.11.23, 보도기사)

나. …… 아세안과 유럽 국가들이 **일본**의 군사 역할 확대를 환영하는 것도 이런 배경과 이유에서다.

일본이 내년 상반기쯤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의 해석을 변경하면 군사적 측면에서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나라가 대한민국 앞에 등장하게 된다. (조선일보 2013.11.22, 사설)

(17가)의 밑줄 친 주어의 ‘**는**’은 ‘**이**’로 바꾸기 어려운데, (17가)의 앞 단락에서 ‘민주노총이 10일 노조의 설립신고증을 찢었다’는 언급이 있어 다

‘NP-이’의 형식인 문장은 화제가 없는 표현으로, 사건을 제시하는 기능을 갖기 때문에 (최동주 2012: 38), 주어가 ‘NP-이’ 형식인 발화가 새로운 사건의 전개일 때 쓰인다고 하였다.

음 단락의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3만명이 참석한’ 것은 앞에 나오는 부분과 하나의 사건을 이루는 하위 상황들에 대한 서술이므로 ‘민주노총은’의 ‘는’을 ‘이’로 바꾸기 어렵다. (17나)의 밑줄 친 주어의 ‘는’은 ‘이’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나, ‘는’이 좀더 자연스럽다. 앞 단락에서 ‘트위터 글’에 대한 언급이 있고 다음 단락에서 앞서 언급된 ‘트위터 글이 계속 옮겨졌다’고 서술하고 있어, (17가)와 마찬가지로 앞에 나오는 부분과 하나의 사건을 이루는 하위 상황들에 대한 서술이므로 ‘트위터 글은’이 좀더 자연스러운 것이다.

(18가)의 밑줄 친 주어의 ‘이’는 ‘는’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나, ‘이’가 좀더 자연스럽다. (18가)의 앞 단락에서 ‘이번 평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다음 단락에서는 ‘이번 평결이 개운치만은 않다’고 서술하여 평결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고 있어, 새로운 사건의 전개로 볼 수 있으므로 ‘이번 평결이’가 좀더 자연스럽다. (18나)의 밑줄 친 주어의 ‘이’는 ‘는’으로 바꾸기 어려운데, (18나)의 앞 단락에서 ‘일본의 군사 역할 확대’에 대한 언급이 있고, 다음 단락에서는 ‘일본이 …… 헌법의 해석을 변경하면’과 같이 ‘일본의 군사 역할 확대’를 초래하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 서술하고 있어, 새로운 사건의 전개이므로 ‘일본이’의 ‘이’를 ‘는’으로 바꾸기 어렵다.¹⁶⁾

이를 통해 주어가 ‘는’ 결합 형식인 발화는 그 앞에 나오는 부분과 하나의 사건을 이루는 하위 상황들에 대한 서술일 때 쓰이며, 주어가 ‘이’ 결합 형식인 발화는 새로운 사건의 전개일 때 쓰이는 양상이 보도기사와 사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16) (18나)의 밑줄 친 주어의 서술어 ‘변경하면’과 같이 연결어미 ‘-면’이 사용된 경우는 주어가 항상 ‘이’ 결합 형식으로 실현되는 점도 ‘이’를 ‘는’으로 바꾸기 어려운 이유이다. 이어진 문장의 연결어미에 따른 주어의 실현 양상에 대해서는 차후의 과제로 남기 고자 한다.

다시 (15)를 보면,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에서 처음 출현할 때 ‘이’ 결합 형식의 빈도가 보도기사와 사설에 비해 소설에서 높은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앞서 살핀 ‘는’ 결합 형식과 ‘이’ 결합 형식의 차이가 장르적 특성과 결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보도기사와 사설은 짧은 텍스트에 하나의 중심 사건을 전달하는 것이 전형적이므로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에서 처음 출현할 때, 새로운 사건의 전개보다는 앞에 나오는 부분과 하나의 사건을 이루는 하위 상황에 대한 서술인 경우가 많다. 그에 비해 소설은 상대적으로 긴 텍스트이고 여러 사건들로 내용이 구성되므로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에서 처음 출현할 때, 새로운 사건이 전개되는 경우가 보도기사나 사설에 비해 빈번하다. 즉,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에서 처음 출현할 때 새로운 사건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은 소설에서 ‘이’ 결합 형식의 빈도가 보도기사나 사설에 비해 높은 것이다.

2.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경우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에서 앞에 언급된 바 있는 경우는 소설·보도 기사·사설 모두에서 앞서 살핀 ‘텍스트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와 ‘텍스트 앞에 언급된 적 있으나,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주어가 생략되는 빈도가 훨씬 높았다. 다음은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경우의 주어의 실현양상을 장르별로 보인 것인데,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바가 화제인지,¹⁷⁾ 비화제인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17) 다음은 Lambrecht(1994: 131)에 제시된 화제의 정의이다(김수정·최동주2013: 41-42에서 재인용).

topic: A referent is interpreted as the topic of a proposition if in a given situation the proposition is construed as being about this referent, i.e. as expressing information which is relevant to and which increases the addressee's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19)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경우

구분		생략		출현		합계	
소설	비화제	54	16.7%	62	45.6%	116	25.2%
		46.6%		53.4%		100%	
	화제	270	83.3%	74	54.4%	344	74.8%
		78.5%		21.5%		100%	
	합계	324	100%	136	100%	460	100%
		70.4%		29.6%		100%	
보도기사	비화제	36	17.5%	57	58.2%	93	30.6%
		38.7%		61.3%		100%	
	화제	170	82.5%	41	41.8%	211	69.4%
		80.6%		19.4%		100%	
	합계	206	100%	98	100%	304	100%
		67.8%		32.2%		100%	
사설	비화제	66	33.5%	71	74.0%	137	46.8%
		48.2%		51.8%		100%	
	화제	131	66.5%	25	26.0%	156	53.2%
		84.0%		16.0%		100%	
	합계	197	100%	96	100%	293	100%
		67.2%		32.8%		100%	

1) 주어가 생략된 경우

knowledge of this referent.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명제가 어떤 지시체에 대한(about) 것으로 이해될 때, 즉, 그 지시체와 관련되고 그 지시체에 대한 상대방의 지식을 증대시키는 정보를 표현할 때, 그 지시체는 그 명제의 화제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어’는 문장 성분의 하나이며, ‘화제’는 ‘지시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어에 ‘는’이 쓰였을 때 그 주어의 지시체는 모두 화제로 간주하며, 생략된 주어의 지시체도 화제로 간주한다.

다음은 김수정·최동주(2013: 58-59)에서 제시한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바 있는 경우에 주어가 생략된 예들이다(밑줄은 서술어임).

(20) 가. 황 영감 말투에 의하면 오로지 만득이를 망신 주려고 **그 결혼식**을 꾸민 것 같았다. 아무튼 처음 구경하는 진풍경이었다. (그 가을의 사흘 동안, 소설)

나. **그 일대의 공상**은 어딘지 모르게 순수하지 못해 보였다. 야릇한 화냥기 같은 걸로 오염돼 있었다. (그 가을의 사흘 동안, 소설)

(20가)의 생략된 주어의 지시체는 ‘그 결혼식’으로 단락 내의 앞에 화제로 제시되지 않았고, (20나)의 생략된 주어의 지시체는 ‘그 일대의 공상’으로 단락 내의 앞에 화제로 제시되었다.

아래의 보도기사와 사설의 예를 보자.

(21) 가. …… 기자가 쓴 **이 책**에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얽힌 뒷얘기가 다수 등장한다. …… 북한 관련 사건이 많았던 부시 행정부의 대북 기조 변화를 엿볼 수 있다. (동아일보 2013.11.14, 보도기사)

나. 그러나 **문화재청이나 관계 기관**에서 속 시원하게 실상을 파헤친 적은 한 번도 없다. …… 부실로 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방치해 온 것이다. (경향신문 2013.11.21, 사설)

(22) 가. 이에 따르면 **북한**은 행정적인 역할을 주로 하는 군단을 …… 2012년에는 15개로 대폭 감축했다. 대신 실제 전투를 담당할 사단은 같은 기간에 63개에서 90개로 늘었다. (중앙일보 2013.11.14, 보도기사)

나. **한국**은 그 한복판에 있다. 정세 변화에 따라선 한·미·일 3각 동맹과 중국 사이에서 [국가적 선택을 재촉받는 순간을 맞을 수도 있다.] (조선일보 2013.11.22, 사설)

(21)은 (20가)와 마찬가지로 단락 내의 앞에 화제로 제시되지 않은 예로, (21가), (21나)의 생략된 주어의 지시체는 각각 ‘이 책’, ‘문화재청이나 관계 기관’이다. (22)는 (20나)와 같이 단락 내의 앞에 화제로 제시된 예로, (22가), (22나)의 생략된 주어의 지시체는 각각 ‘북한’, ‘한국’이다.

(19)를 보면, 소설에서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바 있으나 생략된 예 324개 중 단락 내의 앞에 화제로 제시되지 않은 예는 54개, 화제로 제시된 예는 270개로, 각각 16.7%, 83.3%의 빈도를 보인다. 보도기사에서는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바 있으나 생략된 예 206개 중 단락 내의 앞에 화제로 제시되지 않은 예는 36개, 화제로 제시된 예는 170개로, 각각 17.5%, 82.5%의 빈도를 보였고, 사설에서는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바 있으나 생략된 예 197개 중 단락 내의 앞에 화제로 제시되지 않은 예는 66개, 화제로 제시된 예는 131개로, 각각 33.5%, 66.5%의 빈도를 보였다.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바 있는 경우는 소설·보도기사·사설 모두에서 ‘텍스트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와 ‘텍스트의 앞에 언급된 바 있으나,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주어가 생략되는 빈도가 훨씬 높는데, 특히 단락 내의 앞에 화제로 제시된 경우에 생략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바 있으나 생략된 예 중 단락 내의 앞에 화제로 제시되지 않은 빈도가 소설이나 보도기사에 비해 사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사설의 장르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다음의 예문을 보자.

(23) 공군은 사업 초기 강력한 스텔스 기능을 강조하다가 지난해 말엔 조건을 낮추더니 이번에 다시 올렸다.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60대의 전투기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하더니 40대로 줄이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스스로

[차기전투기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을 부인하는] 꼴이다. (한겨레신문 2013.11.21, 사설)

(23)에서 밑줄 친 서술어의 생략된 주어의 지시체는 밑줄 친 서술어와 관련을 갖는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사실 전체로,¹⁸⁾ 단락 내의 앞에 화제로 제시되지 않은 경우이고, 서술어는 생략된 주어의 지시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나 주장을 나타낸다.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바 있으나 생략된 예 197개 중 생략된 주어의 지시체가 서술어와 관련을 갖는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사실 전체인 예는 사설에서 37개로 18.8%의 빈도를 보인다.

다음은 소설과 보도기사의 예이다.

(24) 가. 그러나 …… 허약한 구석도 있어서, 그럴 때마다 그 노릇을 다시는 못할 것처럼 정이 떨어지다가도 그래도 55세까진 해야지 하고는 마음을 다시 농쳐먹곤 했다. 55세에 특별한 뜻은 없었다. 나도 모르게 [공무원이나 은행원의 토식 연한에서 빌려 온 착상인] 것 같았다. (그 가을의 사흘 동안, 소설)

나. 외교부는 22일 이 같이 결정하고 내년부터 3년간 무상 정부개발원조(ODA) 형식으로 필리핀의 재건복구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앞서 12일 500만 달러를 긴급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에 이은] 후속 조치다. (한국일보 2013.11.23, 보도기사)

(24가,나)의 밑줄 친 서술어의 생략된 주어의 지시체는 (23)과 같이 밑

18) (23)에서 밑줄 친 서술어의 생략된 주어가 외현적으로 실현된다면, 밑줄 친 서술어와 관련을 갖는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사실 전체를 가리키는 ‘이것은, 이는’ 정도로 나타날 것이다.

줄 친 서술어와 관련을 갖는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사실 전체이다. 소설에서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바 있으나 생략된 예 324개 중 생략된 주어의 지시체가 서술어와 관련을 갖는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사실 전체인 예는 4개로 1.2%에 불과했고, 보도기사에서도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바 있으나 생략된 예 206개 중 생략된 주어의 지시체가 서술어와 관련을 갖는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사실 전체인 예는 18개로 8.7%에 그쳤다. 사실에서는 생략된 주어의 지시체가 서술어와 관련을 갖는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사실 전체인 경우에 생략된 주어의 지시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나 주장이 나타나는 것과 달리, 소설과 보도기사에서는 생략된 주어의 지시체에 대한 부가적인 내용이 서술되었다.

이를 통해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바 있으나 생략된 예 중 단락 내의 앞에 화제로 제시되지 않은 빈도가 소설이나 보도기사에 비해 사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에서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사실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나 주장이 서술되는 경우에 서술어와 관련을 갖는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사실 전체(비화제)를 지칭하는 주어가 생략되는 빈도(18.8%)가 소설(1.2%)이나 보도기사(8.7%)에 비해 높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2) 주어가 출현한 경우

다음은 김수정·최동주(2013: 59-63)에서 제시한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바 있지만 주어가 외현적으로 실현된 예들이다.

- (25) 가. 안방엔 **고쟁이** 바람의 처녀가 마구 으깨진 입술을 더욱 모질게 악물고 …… 언제 파수(破水)했는지 고쟁이는 이미 평하게 젖어 있었다.
(그 가을의 사흘 동안, 소설)

- 나. 나는 **증오**로써 그 일을 했다. 그 일을 실수 없이 하기 위해선 […… 원치 않은] 생명에 대한 **증오**가 잠시도 나를 떠나 있으면 안 되었다. (그 가을의 사흘 동안, 소설)
- 다. **창가에 놓인 우단의자**는 부드러운 햇빛이다. 그러나 손으로 우단천을 걸과 반대 방향으로 쓸면 슬쩍 녹두빛이 돈다. 처음엔 짙은 색이었다. **그 의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삼십 년 동안은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하는 일이라곤 햇볕에 자신의 몸을 햇빛으로 바래는 일밖에 없다. **그건** 처음부터 거기 있었고 처음부터 쓸모가 없었다. (그 가을의 사흘 동안, 소설)
- 라. 그러나 **태이**는 두부만 겨우 만출(娩出)되고 나서 일단 정지했다. 놀랍게도 그 경황 중에 **태아**가 눈을 반짝 떴다. (그 가을의 사흘 동안, 소설)

(25가,나)의 밑줄 친 주어의 지시체 ‘고쟁이’, ‘증오’는 단락 내의 앞에 화제로 제시되지 않았고, (25다,라)의 밑줄 친 주어의 지시체 ‘창가에 놓인 우단의자’, ‘태아’는 단락 내의 앞에 화제로 제시되었다.

아래의 보도기사와 사설의 예를 보자.

- (26) 가. 그만큼 **필리핀**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필리핀**은 6·25전쟁 당시 병력 7,000여명을 보낸 참전국이기도 하다. (한국일보 2013.11.23, 보도기사)
- 나. …… 제주대학교 병원이 환자 권리를 보장하는 ‘**환자권리장전**’을 채택하고 선포식을 했다. 채택된 **환자권리장전**은 ……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중앙일보 2013.11.05, 사설)
- 다. …… 유명 블로거와 논객들을 대거 잡아들여 처벌한 일도 **푸정화**의 작품이다. 지난달 28일 벌어진 천안문 차량 돌진 사건 때도 **그**가 진두지휘해 가담자 색출에 나섰다. (중앙일보 2013.11.14, 보도기사)
- 라. 세금 먹는 하마가 돼 **지자체**를 파산지경으로 내몰고 있는 이런 사업

들이 시행된 배경에는 …… 지자체들이 무상보육과 급식 등의 확대
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 (한겨레신문 2013.11.05, 사설)

(27) 가. 그런데도 **강 의원은** 방송에까지 출연해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변
명을 늘어놓으며 …… 더구나 강 의원은 2010년 6월과 12월에도 각
각 국회 보좌관과 경위에게 폭력을 행사해 벌금 500만원, 1000만원
씩을 선고받은 일이 있다. (중앙일보 2013.11.20, 사설)

나. …… **피해 여성들은** 런던 남부 램버스 구역의 가정집에서 지난달
25일 구조됐다. 69세 말레이시아인, 57세 아일랜드인, 30세 영국인인
이들은 현재 보호장소에 머물고 있다. (한국일보 2013.11.22, 보도기사)

다. **이 사건은** 1975~87년 고아, 장애인 등 4,000여명이 부산 형제복지원
에 수용돼 …… 1987년 3월 원생 35명이 집단 탈출하는 과정에서
명이 직원의 구타로 숨지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한국일보
2013.11.23, 보도기사)

라. 가스·전기료와 같은 공공요금이나 치솟는 전셋값을 생각하면 ‘**저물
가는** 솔직히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단어다. 그럼에도 통계를 보면 저
물가 시대가 슬그머니 우리 앞에 다가서고 있다. (중앙일보 2013.11.
21, 사설)

(26)의 밑줄 친 주어의 지시체 ‘필리핀’, ‘환자권리장전’, ‘푸정화’, ‘지자
체’는 (25가,나)와 마찬가지로 단락 내의 앞에 화제로 제시되지 않은 예들
이고, (27)의 밑줄 친 주어의 지시체 ‘강 의원’, ‘피해 여성들’, ‘이 사건’, ‘저
물가’는 (25다,라)와 같이 단락 내의 앞에 화제로 제시된 예들이다.

(19)를 보면, 소설에서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바 있으
나 주어가 외현적으로 실현된 예 136개 중 단락 내의 앞에 화제로 제시되
지 않은 예는 62개, 화제로 제시된 예는 74개로, 각각 45.6%, 54.4%의 빈
도를 보인다. 보도기사에서는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바
있으나 주어가 외현적으로 실현된 예 98개 중 단락 내의 앞에 화제로 제시

되지 않은 예는 57개, 화제로 제시된 예는 41개로, 각각 58.2%, 41.8%의 빈도를 보였고, 사설에서는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바 있으나 주어가 외현적으로 실현된 예 96개 중 단락 내의 앞에 화제로 제시되지 않은 예는 71개, 화제로 제시된 예는 25개로, 각각 74.0%, 26.0%의 빈도를 보였다. 소설·보도기사·사설 모두에서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바 있으나 주어가 외현적으로 실현된 경우는 주어가 생략된 경우에 비해 단락 내의 앞에 화제로 제시된 예의 빈도가 매우 낮아졌다. 이는 앞서 소설·보도기사·사설 모두에서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경우에 주어의 생략은 특히 단락 내의 앞에 화제로 제시된 경우에 두드러진다고 한 것과 같이,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화제로 제시된 경우에 생략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보도기사와 사설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져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바 있으나 주어가 외현적으로 실현된 경우에 단락 내의 앞에 화제로 제시되지 않은 예의 빈도가 화제로 제시된 예의 빈도보다 높다. 이는 단락의 길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단락의 길이가 짧으면 단락 내의 앞에 화제로 제시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적을 가능성이 높고, 단락 내의 앞에 화제로 제시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적을수록 해석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더 쉽게 생략될 수 있다. 자료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보도기사와 사설은 소설에 비해 대체로 단락의 길이가 짧다. 즉, 소설에 비해 단락의 길이가 짧은 보도기사와 사설은 단락 내의 앞에 화제로 제시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더 쉽게 생략될 수 있으므로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화제로 제시된 경우에 생략되는 경향이 소설에 비해 보도기사와 사설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이다.

한편 (19)의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바가 화제가 아닌 경우에 주어의 생략과 출현 빈도를 보면, 소설과 사설에서는 주어의 생략

과 출현 빈도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에 비해, 보도기사에서는 주어의 출현 빈도가 61.3%, 주어의 생략 빈도가 38.7%로 큰 차이를 보인다. 보도 기사에서는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바가 화제가 아닌 경우에 주어가 다시 외현적으로 출현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보도기사에서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바 있으나, 화제로 언급되지 않은 경우의 지시체가 다시 나타날 때, 주어가 생략되는 것보다 외현적으로 출현하는 것이 정보의 명확한 전달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바 있지만 외현적으로 출현한 주어의 실현 양상을 장르별로 보인 것이다.

(28)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바 있지만 출현하는 경우

구분		NP-는	NP-이	NP-X	NP	합계	
소설	비화제	출현수	43	11	8	0	62
		백분율	69.4%	17.7%	12.9%	0.0%	100%
	화제	출현수	60	14	0	0	74
		백분율	81.1%	18.9%	0.0%	0.0%	100%
보도기사	비화제	출현수	48	7	2	0	57
		백분율	84.2%	12.3%	3.5%	0.0%	100%
	화제	출현수	36	5	0	0	41
		백분율	87.8%	12.2%	0.0%	0.0%	100%
사설	비화제	출현수	44	23	3	1	71
		백분율	62.0%	32.4%	4.2%	1.4%	100%
	화제	출현수	16	7	2	0	25
		백분율	64.0%	28.0%	8.0%	0.0%	100%

(28)을 보면, 소설·보도기사·사설 모두에서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바가 화제인지, 화제가 아닌지에 상관없이 ‘는’ 결합 형식

의 빈도가 ‘이’ 결합 형식의 빈도보다 훨씬 높다. 이에 대해 김수정·최동주(2013: 61)는 주어가 ‘NP-는’의 형식이거나 생략된 경우는 단락 내의 앞에서 이미 화제로 제시된 지시체가 다시 화제인 경우라고 하면서, 이러한 경우 주어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다. (19), (28)을 함께 보면, 소설에서 단락 내의 앞에 화제로 제시된 지시체가 다시 화제인 경우 주어 생략된 예는 270개, ‘는’ 결합 형식으로 실현된 예는 60개로, 81.8%가 생략되었다. 보도기사에서는 단락 내의 앞에 화제로 제시된 지시체가 다시 화제인 경우 주어 생략된 예는 170개, ‘는’ 결합 형식으로 실현된 예는 36개로, 82.5%가 생략되었다. 사설에서는 단락 내의 앞에 화제로 제시된 지시체가 다시 화제인 경우 주어 생략된 예는 131개, ‘는’ 결합 형식으로 실현된 예는 16개로, 89.1%가 생략되었다. 보도기사와 사설에서도 소설과 마찬가지로 단락 내의 앞에 화제로 제시된 지시체가 다시 화제인 경우는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소설·보도기사·사설 모두에서 단락 내의 앞에 화제로 제시된 지시체가 다시 화제인 경우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는데, 생략되지 않은 경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이에 대해 김수정·최동주(2013: 61-62)는 (25다)의 예를 들어, 화제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타나는 현상을 규칙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동일한 지시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더라도 다른 측면에 관한 설명인 경우에는 화제가 다시 외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또 앞에서 화제로 제시된 지시체가 다시 화제로 제시되면서 형태가 단순해지는 현상도 주목된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양상은 보도기사와 사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27가)는 사설의 예로 밑줄 친 주어의 지시체 ‘강 의원’은 단락 내의 앞에서 화제로 제시된 바 있는데 다시 화제인 경우 생략되지 않고 ‘는’ 결합 형식으로 실현되었다. ‘강 의원’이라는 동일한 지시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더라도 ‘강

의원'과 관련된 또 다른 사건들에 대해 서술하고 있어 화제가 다시 외현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보도기사의 예인 (27나)에서 밑줄 친 주어의 지시체 '피해 여성들'은 단락 내의 앞에서 화제로 제시된 바 있는데 다시 화제인 경우 생략되지 않고 '는' 결합 형식인 '이들은'으로 실현되었다. 앞에서 화제로 제시된 지시체가 다시 화제로 제시되면서 형태가 단순해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27다, 라)는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화제로 제시된 바 있는데 '이' 결합 형식으로 실현된 예들이다. (27다)의 밑줄 친 주어의 지시체 '이 사건'은 단락 내의 앞에 화제로 제시된 바 있는데 '이' 결합 형식으로 실현되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락 내의 앞에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새로운 사건의 전개이므로 '이' 결합 형식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다. (27라)도 밑줄 친 주어의 지시체 '저물가'가 단락 내의 앞에 화제로 제시된 바 있는데 '이' 결합 형식으로 실현되었다. 단락 내의 앞에서 '저물가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와 상반되는 내용으로 '저물가 시대가 다가서고 있다'고 서술하여, 새로운 사건이 전개되는 느낌이 강하므로 '이' 결합 형식이 더 자연스럽다.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바가 화제인지, 화제가 아닌지에 상관없이 '이' 결합 형식의 빈도가 소설이나 보도기사에 비해 사설에서 높은 점도 주목된다. 이는 사설의 장르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다음 예문을 보자.

- (29) …… 홍창원 단청장이 자신의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 홍 단청장은 국가가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라는 점에서 경찰 조사 자체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경향신문 2013.11.21, 사설)

(29)의 밑줄 친 주어의 지시체는 단락 내의 앞에서 언급된 바 있으나 ‘이’ 결합 형식으로 실현되었는데, 단락 내의 앞에서 언급된 내용 중 ‘경찰 조사’를 특별히 지정하여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사실에서 (29)의 예와 같이 어떤 지시체를 특별히 지정하여 말함으로써 필자의 생각이나 주장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 이때 특별히 지정하여 말함으로 해석되는 방법 중 하나로 ‘이’ 결합 형식이 사용될 수 있다.¹⁹⁾ 즉, 소설이나 보도기사에 비해 필자의 생각이나 주장이 드러나는 사실에서 어떤 지시체를 특별히 지정하여 말하는 문맥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경우에 ‘이’ 결합 형식이 사용될 수 있으므로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바 있지만 출현하는 경우의 ‘이’ 결합 형식의 빈도가 소설이나 보도기사에 비해 사실에서 높은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소설·보도기사·사설에서의 주어의 실현 양상을 살펴 문어 텍스트의 장르별 주어의 실현 양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설·보도기사·사설에서 상이하게 나타난 주어의 실현 양상>

첫째, 정보 전달에 목적이 있는 보도기사에서는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되지 않은

19) 최동주(2012: 37)에서는 ‘특별히 지정하여 말함’이 ‘이/가’만의 의미가 아니라고 한 바 있다. 본고도 이에 동의하는 바, (29)에 대한 설명이 ‘특별히 지정하여 말함’이 ‘이’ 결합 형식만이 갖는 의미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주어의 지시체가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소설이나 사설에 비해 강하다.

둘째,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의 앞에 언급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의 장르별 특성으로 소설에서는 수사적 특성, 시간, 거리, 장소, 상황 등을 언급하는 경우, 사설에서는 필자의 생각이나 주장이 드러나는 서술어가 쓰이는 경우가 있었고, 보도기사와 사설에서 공통적으로 신문의 상투적인 구문인 경우에 주어의 생략이 가능했다.

셋째, 주어의 지시체가 텍스트에 처음 출현할 때 ‘는’ 결합 형식의 빈도가 소설이나 사설에 비해 보도기사에서 특히 높는데, 이는 보도기사에서 정보를 전달할 때 인용이 많이 나타나고, 인용 부분의 출처를 나타내는 주어는 대부분 ‘는’ 결합 형식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넷째,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에 처음 출현할 때 ‘이’ 결합 형식의 빈도가 보도기사와 사설에 비해 소설에서 높는데, 이는 소설이 긴 텍스트이고 여러 사건들로 내용이 구성되므로 새로운 사건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이’ 결합 형식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바 있으나 생략된 예 중 단락 내의 앞에 화제로 제시되지 않은 빈도가 소설이나 보도기사에 비해 사설에서 높는데, 이는 사설에서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사실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나 주장이 서술되는 경우에 서술어와 관련을 갖는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사실 전체(비화제)를 지칭하는 주어가 생략되는 빈도가 소설이나 보도기사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여섯째,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서 화제로 제시된 경우에 생략되는 경향이 소설에 비해 보도기사와 사설에서 강한데, 이는 소설에 비해 단락의 길이가 짧은 보도기사와 사설은 단락 내의 앞에 화제로 제시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해석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더 쉽게 생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보도기사에서는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바가 화제가 아닌 경우에 주어가 다시 외현적으로 출현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바 있으나, 화제로 언급되지 않은 지시체가 다시 나타나는 경우는 주어가 생략되는 것보다 외현적으로 출현하는 것이 정보의 명확한 전달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여덟째, 주어의 지시체가 단락 내의 앞에 언급된 바 있지만 출현하는 경우의 ‘이’ 결합 형식의 빈도가 소설과 보도기사에 비해 사설에서 높는데, 이는 어떤 지시체를 특별히 지정하여 말하는 문맥이 소설이나 보도기사에 비해 사설에서 많이 나타나고, 이러한 경우에 ‘이’ 결합 형식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문어 텍스트의 일부 장르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문어 텍스트의 장르별 주어의 실현 양상을 전반적으로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더 다양한 문어 텍스트 장르로 분석 대상을 확대한다면, 문어 텍스트의 장르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주어의 실현 양상에 대한 폭넓은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문어 텍스트의 일반적인 주어의 실현 양상을 밝히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우원, 「신문 사설 텍스트의 주제와 주제 전개에 관한 연구」, 『우리말연구』 29, 우리말학회, 2011, pp.209-229.
- 김수정·최동주, 「소설 텍스트에서의 주어의 실현 양상 - 박완서의 소설 ‘그 가을의 사흘 동안’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64, 한민족어문학회, 2013, pp.37

-69.

- 김호준, 『사설(社說)이란?』, LG상남언론재단, 1998.
- 남기심 · 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제3판, 탑출판사, 2011.
- 목정수, 『한국어문법론』, 월인, 2003
- 박성현, 『한국어 대화 화제와 말차례 체계』, 집문당, 2008.
- 박승윤, 『담화의 기능상으로 본 국어의 주제』, 『언어』 11-1, 한국언어학회, 1986, pp.1-15.
- 박종화, 『미디어 문장과 취재 방법론』, 한울, 2012.
- 박철우, 『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 역락, 2003.
- 성기철, 『국어의 주제 문제』, 『한글』 188, 한글학회, 1985, pp.1-25.
- 유현경 · 양수향 · 안에리, 『영어권 중 · 고급 학습자를 위한 조사 ‘가’와 ‘는’의 교수방안 연구-한영 병렬말뭉치를 이용하여-』, 『이중언어학』 34, 이중언어학회, 2007, pp.272-298.
- 이남성, 『한국 신문 사설의 장르 특성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43, 한국프랑스학회, 2003, pp.125-146.
- 이정민, 『(비)한정성/(불)특정성 대 화제(Topic)/초점-개체 층위/단계 층위 술어와도 관련하여-』 『국어학』 22, 국어학회, 1992, pp.397-424.
- 이필영, 『조사 ‘가/이’의 의미 분석』, 『관악어문연구』 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2, pp.417-431.
- 임홍빈, 『한국어의 주제와 통사분석-주제 개념의 새로운 전개』,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9.
- 장호순, 『현대 신문의 이해』, 나남, 2012.
- 전영철, 『한국어의 대조초점』, 『언어학』 43, 한국언어학회, 2005, pp.215-237.
- 정희원, 『한국어 대조화제와 화제, 초점: 정보구조적 관점에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채 완, 『조사 ‘는’의 의미』, 『국어학』 4, 국어학회,(1976) 93-111쪽.
- _____, 『화제의 의미』, 『관악어문연구』 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9, pp.205-227.
- _____, 『화제와 총칭성, 특정성, 한정성』, 『목천유창균박사 환갑기념논문집』, 1984, pp.743-755.
- 최동주, 『은/는’과 ‘이/가’의 출현 양상』, 『인문연구』 65,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pp.25-58.

최인호, 『기사 문장론』, 한겨레신문사, 2001.

한정환, 「내포문에서의 화제화 제약과 정보구조」, 『언어』 27-3, 한국언어학회, 2002, pp.535-556.

Brown, G. and G. Yule, *Discourse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Chafe, W., *Discourse, consciousness, and tim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Cole, p.ed., *Radical Pragmatics*, Academic Press, 1981.

Halliday, M.A.K. and R. Hasan, *Cohesion in English*, Longman, 1976.

Lambrecht, K.,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s of discourse refere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Levinson, S.,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Prince, E. F., *Toward a Taxonomy of Given-New Information*, in p.Cole ed.(1981) *Radical Pragmatics*, 1981, pp.223-255.

Reinhart, T., *Pragmatics and linguistics: An analysis of sentence topics*, *Philosophica* 27, 1981, pp.53-94.

Schiffrin, D., *Approaches to Discourse*, Blackwell Publishers, 1994.

Stubbs, M., *Discourse Analysis - The Sociolinguistic Analysis of Natural Language*, Basil Blackwell, 1983.

Vallduví, *The Informational component*,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0.

Abstract

A study on the form of subjects in Korean written text by genre

Kim, Su-Jeong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form of subjects in novels, news articles and editorials in written text by gen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tendency that the referent of a subject appears covertly not only in the case that the referent of a subject is not referred to before the text, but also in the case that it is not referred to within a paragraph is more dominant in the news article whose main purpose is to deliver information than in a novel and an editorial. Second, when the referent of a subject is referred to in the text for the first time, the tendency that it is the form of 'NP+in/nin' is more obvious in news article than in a novel and an editorial. It is because that a news article uses quotations more frequently and the subject is mostly coupled with the form of 'NP+in/nin'. Third, when the referent of a subject appears within a paragraph for the first time, the frequency that it is coupled with the form of 'NP+i/ga' is greater in a novel than in a news article and an editorial. It is because a novel uses a long text and the text is comprised of several events and, therefore, when a new event begins, the subject is often coupled with the form of 'NP+i/ga'. Fourth, the tendency that the referent of a subject is omitted when the referent of a subject is presented as topic in the same paragraph is more apparent in a news article and an editorial than in a novel. It is because a news article and an editorial use a shorter paragraph than a novel and have less chance to use as topic in the same paragraph, so it can be more easily omitted unless the omission causes confusion in interpretation. Finally, when the referent of a subject is referred in the same paragraph, the frequency that it is coupled with the form of 'NP+i/ga' is greater in an editorial than in a novel and a news article. It is because that an editorial uses a context in which a referent

is specified more often than a novel and a news article and, in this case, the subject is combined with the form of 'NP+i/ga'.

Key Word : written text, genre, subject, topic, omission, 'in/nin', 'i/ga'

〈부록〉

장르	출처	날짜	비고
소설	박완서(2006), 『환각의 나비』, <그 가을의 사흘 동안>, 10-37쪽.		1
보도기사	경향신문	2013.11.10	2편
	동아일보	2013.11.14	2편
	중앙일보	2013.11.14	2편
	한겨레신문	2013.11.12	2편
	한국일보	2013.11.12 - 2013.11.24	23편
사설	경향신문	2013.11.05 - 2013.11.21	6편
	조선일보	2013.11.05 - 2013.11.22	6편
	중앙일보	2013.11.06 - 2013.11.21	5편
	한겨레신문	2013.11.06 - 2013.11.22	5편
	한국일보	2013.11.05 - 2013.11.21	4편

김수정

소속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전자우편 : alsemf38@naver.com

이 논문은 2016년 3월 12일 투고되어
 2016년 4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6년 4월 16일 게재 확정됨.